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 무 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6월부터 8월까지가 남북관계의 골든타입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을 보면 남북관계에서 골든타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우리의 희망사항은 아닐는지? 또 골든타입을 놓치면 남북관계는 영영 회복이 어려운 건지? 여러 가지 질문들이 꼬리를 문다.

남북관계의 경색은 무엇보다 북한 요인이 크다. 집권 4년차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어느 정도 통치의 자신감을 가진 듯하다. 핵개발이나 SLBM 실험 등 체제보위 수단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현지지도를 통해 선대에 필적하는 지도력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

남북 간에 비공식 특사 교환이 필요하다

경험이나 깊은 철학이 부족한 젊은 지도자가 과도한 자신감과 오만함으로 인해 소위 자기 방식대로 대외관계를 가져 갈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은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2013년 개성공단 일시 중단이나 지난 5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허가 철회, 광주 U대회 참가 철회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변덕과 비일관성은 문제다. 이는 현재 북한 내부의 정책결정 과정이 젊은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과 그 지도자의 즉흥성에서 비롯되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반영하듯 이 다시 국방위원회 등 보수 군인들이 대남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소위 '대화파'나 '비둘기파'들은 보이지도 않는다.

박근혜정부는 올해 초부터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해 왔으나 북한의 지속적인 대화 거부에 부딪히고 있다. 근본적으로 아쉬운 것은 아직 남북한이 기싸움 수준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골든타입도 때가 있는 법이고, 적절한 카드를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흐든는 패는 지금이나 작년이나 재작

년이나 비슷한 것 같다.

독일의 경우는 1970년대 초 대 동독 정책의 근본 틀을 바꾸었다. 그토록 동독정권이 출기차게 요구해 온 동독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동독으로부터 교류와 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변화를 이끌어 냈다. 명분을 버리고 실리를 택한 것이다. 이후 한해 300~400만 명의 동서독 주민들이 서로 오고 가고 했다. 그러면서 친척과 가족들을 상봉하고 분단의 고통이 점차 해소되었다. 이를 위한 통신, 우편, 교통 등 각종 교류 협력의 제도적 장치들도 확충되었다. 서독 정부는 대 동독 차관을 반대급부와 연계시켜 동독 정부의 양보를 받아 냈고, 동서독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은 신뢰라는 좋은 명분은 있지만 실리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 미약한 부분이 있다. 정부는 남북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최근 가뭄 지원이나 이회호 여사의 방북 등을 추진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근본적인 시도가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그렇

다고 갑자기 5.24 조치를 해제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핵 개발이나 무력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게 아무런 확약 없이 막무가내 식 주장을 수용하라는 이야기도 아니다. 다만, 골든타입, 골든타입이라고는 하는데 사실 이에 걸맞은 전략이 부재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골 8·15 광복 70주년을 맞는다. 정부는 올해 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남북 공동행사 등의 사업을 다양하게 구상한 바 있다. 그러나 6·15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이마저도 성사되기 어려워 보인다.

남북 간에는 명분에 집착한 나머지 대화와 부족하다. 대화와 부족하기 때문에 신뢰도 부족할 수밖에 없다. 미·중 수교나 서독의 통일외교 등 치열한 외교환경에는 헨리 키신저나 한스 디트리히 겐서와 같은 조정자(coordinator)가 있었대. 남북 간에 비공식적으로 특사를 교환하여 얽힌 실타래를 하나 둘씩 풀어 나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제 곧 9월 중국 의 항일 전승절에 남북 정상들의 참여 문제가 시끄러울 텐데, 이러한 계기를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을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의료칼럼

여름철 눈 건강 관리



최 광 주
아이안과 대표원장

‘여름철 눈 건강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첫째로 겨울철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듯 여름에 유행하는 눈병인 바이리시스성 결막염을 피하는 게 상책이다. 둘째, 자외선 노출을 줄이는 일. 셋째, 에어컨을 장시간 노출되어 안구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일이다.

특히 올 여름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국내에 전파되면서 국민이 바깥 나들이를 삼가거나 단체모임을 피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여름철에 잘 유행해 쉽게 타인에게 전염되는 눈병도 메르스 원인균과 마찬가지로 바이리시스 균에 의해 전염된다. 이차

림 외부 활동이 자제되는 분위기 속에서 유행하는 눈병이 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유행성결막염의 이야기에 앞서 바이리시스 균에 대한 상식을 좀 더 늘려보자. 바이리시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각각 다른 종류의 바이리시스는 우리 인간의 몸에 침범하는 부위가 다르고, 그에 따른 증상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당연히 병명도 다르게 불린다. 바이리시스는 가장 작은 크기의 생명체이다. 생명체인 만큼 후체를 남기기 위해 생물들처럼 종의 대물림을 위한 노력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스스로 이러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생물체에 침투해 생물을 고폐하면서 번식한다. 이 과정에서 바이리시스에게는 종자의 번식이지만 인간에게서는 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부터 바이리시스에 공격당하면서 생존해왔다. 그런데도 어떻게 인간이 바이리시스에 대항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다행히 인체에는 외부 적의 침투에 대한 방어체계가 있고, 이를 인체 내에 존재하는 면역체계가 한다.

모든 인간이 잘 작동되는 완벽한 면역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메르스를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리시스나 눈병을 옮기는 바이리시스에 접한다고 하더라도 병으로 나타나기 전에 퇴치된다. 그러나 한꺼번에 많은 양의 바이리시스를 접하거나 면역체계가 취약하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되지 못하고 바이리시스가 우리 몸에서 번식하게 되며,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때 사람은 병의 증상을 자각하고 알아 가는 과정이며, 한편 우리 몸은 면역체계를 동원하고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바이리시스를 퇴치해 가는 상황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지만 회복되듯이 다양한 바이리시스에 의해 감염이 된다고 하더라도 면역체계가 바이리시스를 퇴치해 건강을 되찾는 것이 일반적인 병의 경로이다. 그러나 불행해도 치명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눈병을 일으키는 균으로는 아데노바이리시스와 엔테로바이리시스 가 있다. 아데노바이리시스는 유행성각결막염을 일으키며 엔테로바이리시스는 아폴로눈병이라는 별명을 가진 급성출혈성결막염을 일으킨다. 이들 눈병은 공기감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을 가까이 접하거나 대화를 나눈다고 해서 옮기는 것은 아니다. 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손이나 오염

된 수건 등을 통해 균이 눈에 직접 옮겨져야 감염이 된다. 따라서 수시로 손을 깨끗이 씻어 청결한 상태를 유지한다면 가족 안에 눈병환자가 있더라도 피할 수 있다.

자외선이 피부암은 물론 각종 피부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인 것처럼 자외선의 과도한 노출은 눈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짧은 야외활동으로 자외선을 접한다고 눈에 큰 문제를 생기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 야외에서 일하는 농부나 선원들을 통한 연구를 살펴보면 과도하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근날개, 백내장, 황반변성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므로 장시간 외출시는 자외선 차단용 선글라스나 썬이 넓은 모자를 같이 착용하는 것이 좋다.

더위를 식혀 주는 에어컨이 방방병을 비롯한 여러 질환을 유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에어컨이 눈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밀폐된 공간에서 불어오는 에어컨 바람은 눈을 건조하게 만드는데, 건조해진 눈은 쉽게 충혈되고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특히 안구 건조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증세가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기 고

새로운 정치란 무엇일까?



박 석 만
한국청년유권자연맹 목포지회 위원장

새로운 정치는 요란한 개혁과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다. 정치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정치의 본래 기능이 무엇인지는 상식에 속하는 것이다. 국민을 편안하게 살게하는 것에서부터 아름답고 선한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보편타당하게 생각하는 정치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바로 그것이다. ‘개혁하다’라는 뜻의 영어단어가 ‘reform’인 것은 ‘원래의 틀(form)로 다시(re)’라는 어원적 의미가 숨어있다.

1571년 독일의 마틴루터에 의해 촉발된 종교개혁은 원래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었는데 새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위한다’는 정신과 자세를 회복하는 것이다. 제도나 법으로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상 공허한 정치적 수사(rhetoric)에 그칠 공산이 매우 크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진 병과 제도 만으로도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 정치는 얼마든지 실현가능하다.

그런데 왜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고 개탄하고 심지어 체념하는 단계에까지 와버렸는가? 앞에서 언급했듯 정치의 본질을 국민과 정치집단이 망각해버린 것이다. 영호남을 분점하고 있는 특정정당의 공천만 받아내면 지역민들이 무조건 그 후보를 선택해주는 행위가 88년 4월 13대 총선부터 반복되었다. 즉 공천장이 곧 임명장이 되는 현실이다보니 중앙당 공천을 받는데 혈안이 되고, 공천만 받으면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니 지역민 목소리에는 귀와 눈을 닫아도 될 수밖에 없었다. 국회의원과 그도 기생하는 일부 지방정치인을 비롯한 경제, 사회적 영향력을 독과점하고 있는 이른바 지역의 토호들이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그에 속하지 않은(또는 속하

지 못한) 대다수의 힘없고 돈없는 시민들은 철저히 소외되는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소외된 지역민들은 선거기간동안에만 “사랑하고 존경하고 위대한~”이라는 수사에 만족하고 또 다시 특정정당이 내세운 후보들의 출세욕과 권력욕을 충실히 채워주는 수단으로 징발되는 처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오죽하면 특정지역에서는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비아냥이 공공연히 얘기되고 있겠는가? 이같은 풍토에서 정치는 괴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뚜렷한 경쟁자도 없고, 거기에 지역민은 충실하게 선택을 반복해주시니 누가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고민해보겠는가? 그저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이에 반발하는 일부 시민과 소수세력은 와해되는 것이다. 이런 풍토에서 정치의 본래적 역할과 기능, 그리고 백성이 주인되는 민주주의 정치기제는 마비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 혹은 새정치는 바로 이같은 문제의식에 다수가 합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한다. ‘위대한 정치인이 악랄한 정치인을 몰아내는 것’보다 ‘평범한 시민이 악의 정치를 몰아내는 것’이

훨씬 쉽고 민주적이며 근본적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호남의 민주시민들이 이같은 문제의식에 점차 동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 토양이 조성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것이다.

그런 물은 썩게 되어있고 절대 권력은 부패하게 되어있다. 호남과 영남에서 양대정당은 절대권력이었다. 고인 물이었던가? 썩고 부패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겠는가? 이제 다가오는 내년 4월 13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시민과 유권자에 의한 새정치가 시작돼야 한다. 그동안 공천만 받으면 끝이라는 오만한 생각을 갖고 있던 후보자들을 퇴출시켜야 한다. 그들은 임기 4년의 상당히 높은 연봉과 다양한 혜택이 보장된 자리를 탐하는 ‘구직자 혹은 낡은 정치의 예비군’들이지 민주정신을 실현해보려는 의지로 무장된 새 정치의 담당자들이 아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새정치는 정치의 본질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제 젊고 혁신적인 정치세력과 시민이 다함께 궂이해 한국의 새로운 정치에 시동을 걸고 정의롭고 역동적인 통일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대장정의 길에 나서야할 것이다.

社 說

호남선 KTX 증차 반갑지만 요금도 내려야

옛그제 아는 이가 서울을 다녀왔는데 KTX를 이용했던 모양이다. 아침에 가서 일을 보고 저녁에 왔으며 흠족했다. 서울과 광주가 만나질 생활권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한다. 온전히 빨라진 KTX 덕분이다. 당연히 열차 이용객도 크게 늘었다.

두 달 전 본보 취재진이 송정역 주변 일대 불법 주·정차 사태를 취재한 바 있다. 개통한 달 정도 밖에 안 된 시점인데 벌써부터 아수라장이었다. 오전 10시도 못 돼 송정역 주차장엔 ‘만차’ 표지판이 걸렸다. 인근 주택가 골목도 차장으로 꽂혔다.

그동안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이용객으로 인해 지역민들은 끊임없이 증편 등 운영 확대를 요구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주중 증편과 주말 증차가 이뤄질 전망이다.

며칠 전 서울에서 열린 ‘호남선 KTX 대책 간담회’에서 이런 내용이 언급됐다. 광주·전남·전북 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은 KTX 증편대책과 요금 문제,

광주송정역사의 시설과 인프라 확충 대책, 광주송정~목포구간의 2단계 공사 대책 등 호남선 KTX 개통 이후 제기된 현안들을 집중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일호 국토부 장관과 최연태 코레일 사장은 다음달부터 주중 증편과 주말 증차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 6월 수서발 KTX 개통과 함께 주말 증편을 단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용 요금이 비싸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타 KTX노선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아직도 호남선 호남선 KTX가 경부선 KTX에 비해 ‘속도는 느리고 요금이 비싸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평성과 지역 차별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코레일은 원점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요금 인하와 송정역사 시설 확충, 광주송정~목포 구간의 2단계 노선 확정 등을 조속히 실현해야 할 것이다.

대기업과 지역 중소기업 상생 바람직하다

광주·전남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이 동반성장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산업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지난 30일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이 지역에 기반을 둔 기아자동차와 삼성전자, 현대삼호중공업 등 3곳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무려 4년 연속 최우수, 기아자동차와 현대삼호중공업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효성도 우수등급을 받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뛰어올랐다.

동반성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력 집중이라는 폐해를 완화해 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한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조업은 물론 유통·건설업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정책을 펼쳐 왔지만 대기업의 반발 등으로 결과는 늘 신통치 않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강력한 추진력으로 90여 개 기업이 ‘양호’ 이상의 좋은 등급을 받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는 등 기업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다.

물론 모든 대기업이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은 아니다. 5개 기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아직도 자사의 단기이익 실현에만 급급하고 정부의 정책에 미지못해 시능만 내고 있는 모양새다.

글로벌 경쟁시대 규모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이 펼쳐지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뿌리부터 가지까지 튼튼한 기업환경을 조성해 신진국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중소기업이 공생하는 동반성장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 정부나 대기업은 강력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체 역량을 키워 줘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K-Pop과 아이돌 그룹, 드라마 등을 내세운 한류 문화가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 음식도 덩달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이 중 한국 전통 음식인 된장(찌개)과 김치는 일부 한류 마니아들 사이에서 특히 인기 있는 음식이다.

된장은 항암 효과뿐만 아니라 간 해독에도 이롭다. 김치는 피부 노화 억제와 대장암 및 동맥경화증 치료에 도움이 된다. 외국인 입장에서 그저 한국이 좋아서 먹는 음식이지만, 더불어 둘 다 유산균이 풍부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기 가 더 치솟고 있다.

건강에 이로움을 띠고 있는 한류 문화가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인이 하루라도 거르기 어려운 삶의 지양분이다. 하지만 된장과 김치에 언제부터인가 ‘녀’자가 붙으면서 우리는 물론 외국인조차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2005년 한 주간지가 ‘경제 능력이 없어 가족에게 의존하면서도 비싼 커피를 마시고, 명품을 선호하는 여성’을 ‘된장녀’로 지칭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된장녀의 의미는 확대·재정의돼 남성이 싫어하는 부정적인 여성상을 상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나아가 된장녀라는 신조어에 여성 혐오 온라인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뜨겁다. 그렇게 지칭된 여성의 행동에 대해 무조

로 한층 강화된 ‘김치녀’라는 단어가 탄생한다. 김치녀는 주로 인터넷이나 SNS에서 일부 남성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뜻으로 쓰는 말로, ‘남성에게 물질적으로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명품 쇼핑 등을 즐기는 개념 없는 여성’을 미한다고 한다. 이 밖에도 두 신조어에 대한 다양한 어원과 뜻이 전해지고 있지만 어찌 됐든 모두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같은 맥락이다.

된장녀와 김치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온라인은 물론 실생활에서도 뜨겁다. 그렇게 지칭된 여성의 행동에 대해 무조

된장과 김치

건적으로 비난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남성 위주의 사회구조가 만들어 낸 모습이라는 반박이 팽팽하게 맞선다. 문제는 이들 신조어의 의미가 옳은 지, 그르지가 아닌지이다. 된장과 김치는 우리 고유의 산물인 만큼 의도치 않았던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답답지 않은 일이다. 신조어는 한번 생성되면 어떤 형태든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게 된다. 이들 신조어가 우리 음식의 맛과 문화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채희승 사회팀장 cha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F A X 222-8005) (F A X 222-019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7-9500)
편집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매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정치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사회부 2200-663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대표 FAX 222-426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